

예비 여성 노인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 노후 동거계획, 주거계획 및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for Future Elderly Living of Middle Aged Women

신화경*
Shin, Hwa Kyoung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know the planning for future elderly living of middle aged women. The specific objects were to grasp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their living together and housing in the elderly stage, economic preparation for the elder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subject were 342 middle aged women living in the capital area.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wanted more emotional support than physic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and wanted to make career for themselves in economic aspect. The most preferred housing for the their elderly stage was not only silver town, but also general housing type, for example, apartment and detached hous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new housing and remodeling system of existing house for more independently elderly living.

Keywords : future elderly living, emotional support, housing for the elderly, middle aged women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의학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7.1%로 이미 노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14.3%로 노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어(통계청, 2000), 서구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노령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평균 수명은 2000년 현재 평균 75.9세(남자가 72.1세, 여자가 79.5세)로, 1981년에 비해 9.7년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평균 78.8세(남자 75.5세 여자 82.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01). 한편 현대 산업 사회의 특성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 의식의 축소,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현상, 자녀와의 별거 의식으로 인해 노인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조선일보, 1997). 이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 및 노년기의 증가와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는 노년기의 삶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킨다.

노년기의 삶은 기본적으로 누가 부양의 주체가 되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이 된다. 즉, 노년기를 위한 생활계획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동거형태와 관련된 동거계획¹⁾,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적인 생계비 조달을 위한 경제계획, 노년기의 일상생활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주거공간확보와 관련된 주거계획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홍성희 외, 1998). 이들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다. 특히, 노후 주거계획은 자녀와의 동거계획과

1)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나타내는 동거계획을 홍성희 외 5인(1998)논문에서는 자녀와의 별거를 독립부양으로, 자녀와의 동거와 시설에 의존하는 것을 의존적 부양으로 보는 부양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피부양자로서가 아니라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에서 노후계획을 파악한 것이므로 동거계획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정회원,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전공 부교수

관련이 되며 이는 경제적인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생활계획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는 노년기의 동거계획, 주거계획 및 경제계획을 파악하고²⁾ 조사대상자 배경변인에 따른 노후 생활계획 특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노령사회에 대비한 노인관련 정책 및 주거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아래 효 및 가족유대를 강조해 온 문화규범으로 인해 노후 자녀와의 동거가 주를 이루었으나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노인인구구조, 가족구조 및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부모세대에서도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노후 자녀와의 동·별거형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신영숙, 1998; 임정빈 외,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실제 2000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98년 44.9%에서 2002년 56.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03). 또한 자녀와의 동·별거형태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 우리 나라에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의식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규범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노후 자녀와의 동거계획은 노후에 어떤 곳에서 살 것인가 하는 주거계획과 관련이 된다. 노인의 경우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에서 보내게 되므로 노후에 거주하게 될 주택유형 및 구조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노후 주거계획에 대한 파악은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모색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노인 주거환경 및 시설은 노화에 따른 노인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요구 변화뿐 아니라 개인적 특

성 및 욕구 변화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주거환경과 주거시설은 노인의 요구에 따른 개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Cavanaugh, 1990).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실버산업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유료양로원, 유료 요양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단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에 노인복지법이 유료노인시설(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원,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을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제 실버타운이 개발되는 등 노인의 주거선택의 폭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으로서 하여금 현재까지 자기가 즐겨 살아온 곳에 오래 살도록 하는 개념과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Pynoos, 1999)³⁾, 노인들도 가능한 한 시설이 아닌 주거에서 독립생활을 오래 유지하려한다. 독립생활에 대한 희망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는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존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99).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신영숙, 1998), 집합주택의 경우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영숙, 1998).

이와 같은 노인의 동거계획과 주거계획은 노인의 재정적 자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노년기 이전과 유사한 경제수준을 누리려는 경제적 목표를 갖게 된다.

1992년 경제기획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61%로서 준비를 하는 노인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2002년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세 이상의 응답자 64%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

3) Pynoos, J.(1999), Public Policy and Aging in Place: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Political Solutions. In M. Ann & C.Scott(Eds.) Aging in Place:Planning for the 21st Century. Vancouver: Gerontology Research Center, Simon Fraser University, 최성재(2002),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본 의료간호 복지 주택의 잠재적 효용성,고령화 사회와 대안주택개발, 연세대학교 밀레리엄 환경연구소, p.53에서 재인용.

2) 본 연구는 노후의 동거계획과 주거계획 및 경제 계획 각각의 특성만을 다루었으며 이들 계획간의 상호 연관성에 관해서는 차기 연구에서 다루고자 함.

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부 연구에 의하면 도시중년기에게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가계가 전체의 약 75%(김성숙 외, 1992)~82%(신영숙, 19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층의 노후 대책은 노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소득과 자녀보조는 감소하는 반면 연금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재성, 1993), 중년층의 노후대책방법으로 개인 저축, 보험, 연금 등의 금융저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영숙, 1998).

II. 연구 방법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이연숙, 신화경, 1995a; 홍성희 외 5인, 1998; 신영숙, 1998; Shin & Lee, 1999)에서 사용한 설문내용 중 노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검증이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취업유무, 주택유형, 주택 소유형태, 주택 규모)과 노후동거계획(노후 희망 동거자, 자녀와의 거주거리, 자녀와의 접촉 빈도), 노후주거계획(노후의 희망주거 유형, 노후주거의 위치, 노후주거의 평수 등), 및 노후경제계획(노후 생활비 부담자,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 등을 포함한다.

본 조사는 1999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 까지 수도권내에 거주하는 40~50대의 중년층 주부(예비 여성 노인)를⁴⁾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시 소재 6개 문화센터의 40세 이상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 600부를 배포하였으며 1주일 후 개별적으로 회수하였다. 총 600부 중 415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자가 40~50대의 연령층이 아니거나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하고 342

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은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

조사대상의 연령은 40대가 72.5%, 50대는 27.5%이며 평균연령은 46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이 34.5%, 중학교 졸업이 6.4%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29.6%였으며, 300만원 이상이 28.1%로 나타났으며 평균 25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⁵⁾.

또한 조사대상자 중 취업 주부는 33.6%였으며 전업주부는 66.4%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은 행정·사무직이 2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이 26.9%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53.2%, 단독주택에 거주자가 23.7%였으며 현재 주택소유형태는 자택인 경우가 67.8%였다. 거주면적은 35평내외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평내외가 28.4%, 45평내외가 14.3%로 나타났다.

2. 노후 동거계획

노후 동거계획으로는 자녀 출가 후 희망 동거특성으로 노후 희망 동거자(자녀출가후의 동거자), 자녀와의 거주거리,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조사하였다. 자녀가 출가한 후에는 노부부나 본인 혼자 거주하겠다는 비율이 83.4%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13.2%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홍성희 외 5인, 1998)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층의 노후 동거계획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4) 중년층은 현재 노화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후생활계획방향 모색에 실질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세대(홍성희 외, 1998; 조미정, 1996) 이들이 갖는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정보는 미래 노인관련 정책 및 주거계획에 필요한 자료로서의 시사성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5) 조사대상은 조사년도(1999년) 도시근로자가계의 월평균수입 222만5천원보다 월평균 수입이 많은 집단이며 소득5분위별로 볼 때 4분위에 속하는 집단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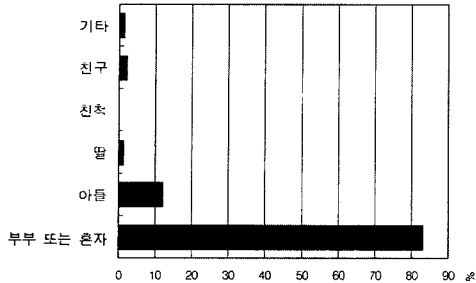


그림 1. 노후 희망 동거자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딸보다는 아들과의 동거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희망 동거자에 대한 선호가 배경변인(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월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χ^2 -test를 한 결과, 노후 희망동거자는 월평균 수입이나 주부의 취업유무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부부나 노인 혼자 살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는 아들과 동거하고자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한다는 임정빈 외(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녀 출가 후 기혼 자녀와의 희망 거주거리를 '같은 집', '같은 동네나 이웃', '같은 단지 혹은 동네', '같은 구', '같은 시', '다른 도시 혹은 도', '다른 나라'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아들의 경우는 '같은 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같은 단지 혹은 동네'가 24.9%, '같은 구'가 18.4%로 나타났다. 딸의 경우는 '같은 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38.9%, '같은

표 1. 학력에 따른 노후 희망 동거자

학력	노후 희망 동거자		부부/ 혼자		아들		딸		기타		계	
	f	%	f	%	f	%	f	%	f	%	f	%
중학교 이하	1	63.64	8	36.36	0	0.00	0	0.00	0	0.00	22	100.00
고등학교	70	84.16	26	12.87	1	0.50	4	1.98	201	100.00		
대학교이상	100	84.75	7	5.93	3	2.54	8	6.78	118	100.00		
계	284	83.04	41	11.99	4	1.17	13	3.80	341	100.00		

$\chi^2 = 26.160(p < .05)$

표 2. 기혼자녀와의 희망 거주거리 N=342(단위 %)

희망 거주거리	같은 집	같은동 (건물) 혹은 이웃	같은 단지 혹은 동네	같은 구	같은 시	다른 시 혹은 도	다른 나라
아들과의 희망 거주거리	12.3	7.9	24.9	18.4	28.7	7.3	0.6
딸과의 희망 거주거리	1.3	7.7	25.0	19.7	38.9	6.8	0.6

은 단지나 동네'가 25.0%, '같은 구'가 19.7%로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자녀와 만나고 싶은 횟수(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주 1회 정도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가 31.0%, 주 2~3회가 13.5%, 일이 있을 때가 12.3%순으로 나타나 주 1회 이상 만나고 싶은 경우가 52.7%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은 낮지만 가까이 거주하면서 자주 만나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녀와 가까이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경변인(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월평균 수입)에 따른 자녀와의 접촉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한 결과, 학력과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수입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평균 수입이 100~150만원 미만의 집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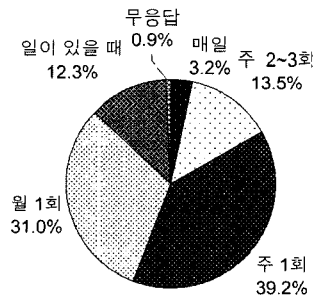


그림 2. 자녀와의 접촉빈도

6) 노인 동거 가족의 경우, 노인과의 동거시 심리적 부담감이 없이 편안하다고 한 경우는 32.7%로 나타나, 노인동거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연숙, 신화경, 1995b).

표 3. 월평균 수입에 따른 기혼자녀와의 별거시 접촉빈도 (단위: %)

자녀와의접촉빈도 월평균 수입	매일	주 2~3회	주 1회	월 1회	일이 있을 때
100만원 미만 (n=15)	6.25	12.50	31.25	37.50	0.00
100~200만원미만 (n=84)	2.38	16.66	48.81	40.48	10.71
200~300만원미만 (n=113)	3.10	14.74	39.53	27.13	15.50
300만원이상 (n=85)	4.17	11.46	38.54	32.29	13.54
계 (n=297)	3.22	13.45	39.18	30.99	13.16

$\chi^2=35.590(p<.05)$

주 2~3회나 주 1회를, 150~200만원미만의 집단은 월1회, 200~250만원인 집단은 일이 있을 때 만나고 자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노후 주거계획

노후 주거계획으로 노후의 희망주거 유형, 노후주거의 위치, 노후주거의 평수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노후의 희망주거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가 모두 출가한 후 어떤 주택에서 살겠는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하겠다는 비율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원래 살던 집에서 살겠다고 26.6%, 다른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하겠다고 21.3%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월평균 수입)에 따라 노후 희망하는 주거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배경변인에 따라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희망 주거 유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연숙(1998)에서 분류한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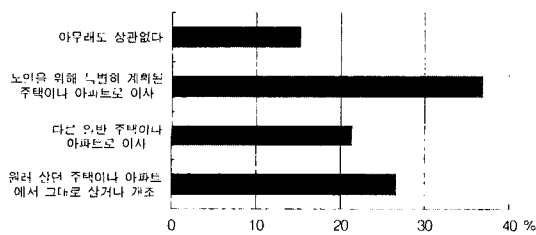


그림 3. 노후 희망 주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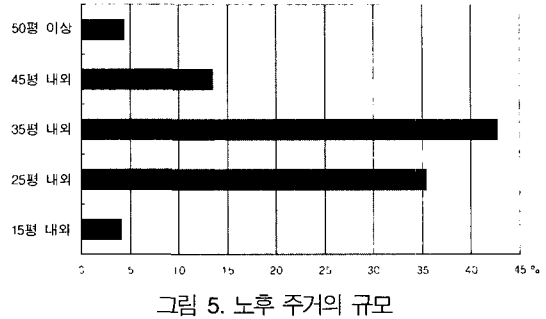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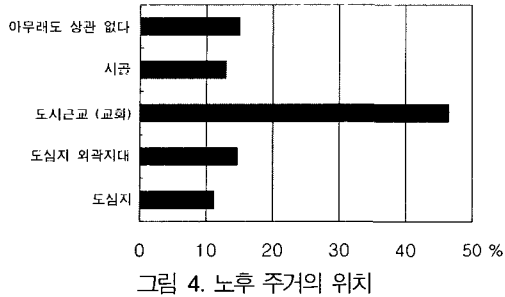
10가지의 주거유형으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단독주택유형이 20.8%, 일반 아파트가 14.6%, 두 세대가 살 수 있게 계획된 외형상 단독주택형태가 14.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선호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에서의 생활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 희망하는 주거 유형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오찬옥, 1992; Shin & Lee, 1999) 건강상태에 따른 노후 희망 주거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건강한 사람은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보통 상태의 건강인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 노인촌에 대한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 두 세대가 같이 살 수 있게 계획된 외형상 단독주택, 유료 양로원, 유료 요양원에 대한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 주거의 지리적 위치로는 도시근교에 대한 선호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도심지 외곽이 14.6%, 시골이 12.9% 순이었다. 이는 기존에 자신이 살아오던 생활양식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선호하여 노후에 도시근교에 거주하기를 선호한다는 신영숙(199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반면에 주거지역의 위치는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14.9%로 나타났다.

표 4.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유형II N=342

구분	%
일반 단독주택 형태	20.8
일반 아파트	14.6
두 세대가 같이 살 수 있게 계획된 것으로 외형상 단독주택 형태	14.3
한 대문 안에 2집이 있는 형태의 주택	9.1
공동사용주택	2.0
빌라형 연립주택	8.5
3대 가족 아파트	3.2
유료 양로원	2.6
유료 요양원	1.8
노인촌(실버타운)	23.1
계	100



배경변인(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월평균 수입)에 따라 노후 희망하는 주거위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집단은 시골을, 고등학교 학력집단은 도심지를, 대학교 이상의 학력집단은 도심지 외곽이나 도시근교를 노후의 주거 위치로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시골을, 100~150만원 미만의 집단은 도심지이나 시골을, 150만원 이상의 집단은 도심지 외곽지대나 도시근교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거의 규모로는 35평 내외에 대한 선호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5평 내외가 35.4%로 나타났다. 노후 희망하는 주거 규모를 현재 거주

하는 규모와 비교한 결과 노후 희망하는 주거규모는 현재 거주규모와 유사하며 현재 15평 내외에 거주하는 집단만 현재 거주 규모나 그 보다 큰 규모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월평균 수입)에 따라 노후 희망하는 주거규모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소득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력과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15평 내외 25평 내외를, 100~200만원 미만의 집단은 25평 내외와 35평 내외를, 200만원 이상의 집단은 35평 내외와 45평 내외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배경변인별 노후 주거의 위치 (row %)

배경변인	노후 주거의 위치					
	도심지	도심지 외곽지대	도시 근교	시골	상관 없음	
학력	중학교 이하	0.00	9.09	31.82	31.82	27.17
	고등학교	13.37	14.36	43.56	11.39	17.33
	대학교이상	9.32	16.10	54.24	11.86	8.47
	계(n=342)	11.11	14.62	46.49	12.87	14.91
$\chi^2 = 20.171 (p < .05)$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0.00	0.00	3.75	18.75	37.50
	100~200만원미만	10.89	13.86	34.65	20.79	19.80
	200~300만원미만	11.63	16.28	50.39	9.30	12.40
	300만원이상	12.5	15.63	54.17	8.33	9.38
	계(n=342)	11.11	14.62	46.49	12.87	14.91
$\chi^2 = 35.590 (p < .001)$						

4. 노후 경제계획

노후 경제계획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비 부담자,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활비를 부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야 한다는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와 국가 및 사회가 같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24.9%, 본인 또는 배우자이외에 자녀와 국가 및 사회가 생활비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에게만 생활비를 의존하겠다는 비율은 2.0%로 현재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중년층의 노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경변인(학력, 주부의 취업유무, 월평균 수입)에 따른 노후생활비 부담자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한 결과, 학력에 따라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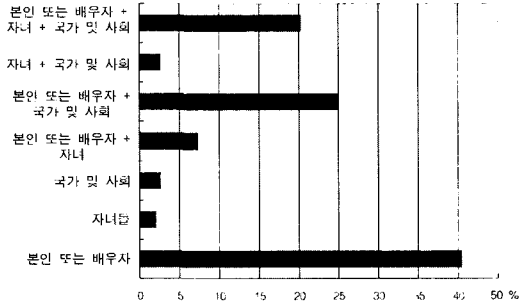


그림 6. 노후생활비 부담자

p < .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월평균 수입이나 주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학교 이하집단은 자녀들,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자녀와 국가 및 사회,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국가 및 사회가 노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교 학력의 집단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노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 집단은 국가 및 사회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국가 및 사회가 노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이하 집단은 자녀에 대한 의존 비율이, 고등학교 학력 집단은 본인이나 배우자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려는 비율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집단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노후경제 준비 방법으로는 저축 또는 보험을 드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금이나 퇴직금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31.0%로 나타났으나 현재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도 7.9%로 나타났다. 중년층이 노후 경제적 준비로 보험이나 저축방법을 많이 택한다는 결과는 신영숙(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배경변인에 따라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p < .05수준에서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력과 주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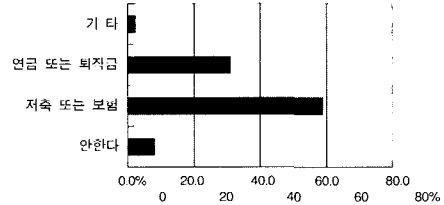


그림 7. 노후 경제적준비 방법

고 있지 않은 비율이 많았으며 100~150 만원미만의 집단과 200~250만원 미만의 집단은 연금 및 퇴직금을, 150~200만원 미만의 집단과 250만원 이상의 집단은 저축 또는 보험을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 경제적 준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으로는 월평균 20만원~40만원 미만을 저축하고 있는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20만원 미만 저축하는 경우가 25.4%, 60만원 이상이 23.5%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라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한 결과, p < .01수준에서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력과 주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의 집단은 월평균 20만원 미만을,

표 5. 소득별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과 저축액 (column %)

월평균 수입		노후경제적 준비 및 저축액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노후 경제적 준비 방법	연금 또는 퇴직금	18.75	33.33	25.00	35.66	32.29
	저축 또는 보험	37.50	46.67	62.50	59.69	67.71
	안한다	43.75	2.00	12.50	3.13	8.47
		$\chi^2 = 58.379 (p < .01)$				
월평균 저축액	10만원미만	44.44	18.91	4.00	5.60	1.06
	10~20만원 미만	44.44	28.89	32.00	23.20	19.15
	20~40만원 미만	11.11	18.91	32.00	32.00	24.47
	40~60만원 미만	0.00	13.51	16.00	15.20	28.72
	60만원이상	0.00	13.51	16.00	24.00	32.98
		$\chi^2 = 86.691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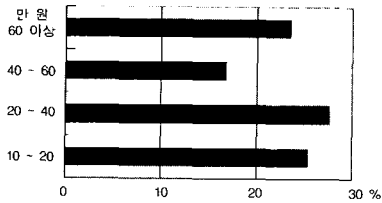


그림 8. 노후를 위한 월평균 저축액

150~200만원 미만의 집단은 10~20만원과 20~40만원 미만을, 200~250만원 미만의 집단은 20~40만원을, 250만원 이상의 집단은 40만원 이상을 노후를 위해 매월 저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결 론

이상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노후 동거계획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거를 희망하지만 거주하는 거리는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동거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자녀와의 근거리에서의 정서적인 지원을 주거나 받는 정서적 유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노년기의 독립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공간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가 출가한 후에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은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노인촌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계획주거의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노인계획주거 중 노인촌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서의 거주나 일반 주거형태로의 이주에 선호가 함께 나타나므로 현 주거를 차후 노년기 특성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노후 거주 지역으로는 도시근교나 도시 외곽 등 기존에 자신이 살아오던 생활양식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였다. 소득 등 열등한 상황이 될수록 도심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므로 새로운 노인 계획주거의 개발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노후주거

의 평수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평수와 유사한 규모를 선호하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계획주거 개발시 다양한 규모의 노인주거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노후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존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 노후 경제적준비 방법으로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저축 또는 보험을 많이 이용하며, 연금 또는 퇴직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노후생활 대비 월평균 저축액은 20~40만원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층인 예비 노인은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막연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노후준비 행동과 관련 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2.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1999), 노인주택 공급제도 개선 및 주공의 참여방안.
3. 민재성(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한국개발연구원.
4.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05-120.
5. 오찬욱(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제한 노인주거모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임정빈 외 7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3(3), 279-290.
7. 이연숙(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8. 이연숙, 신화경(1995a), 노인동거가족의 공간적 환경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2), 91-100.
9. 이연숙, 신화경(1995b), 노인동거가족의 주택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2), 155-162.
10. 조선일보, 1997.2.28.
11. 조선일보, 2003.2.23.
12. 통계청(2000), 장래 인구 추계.
13. 통계청(2001), 장래 인구 추계.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15. 홍성희, 외 5인(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 36(10), 1-22.
16. Cavanaugh, J.C.(1990),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elmont, Ca:Wadsworth Publishing Co.
17. Shin, H.K. & J.M. Lee(1999), A Fundamental Study on the Planning of Elderly Housing,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0(3), 153-164.